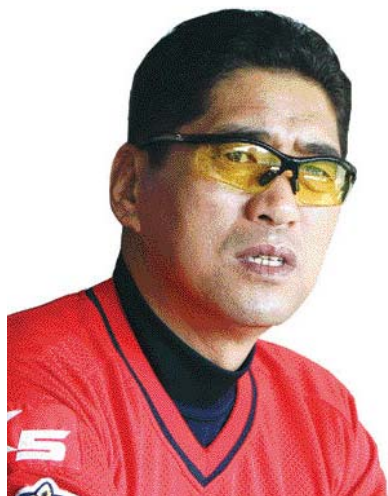


호랑이 '투·타 복구' 4강 대반격



침몰위기에 몰린 '조범현호'가 마지막 카드를 빼어 들었다.

6위로 전반기를 마감한 KIA 타이거즈가 다시 한 번 코치진 개편에 나섰다. 1군 투수 코치였던 스키모토 코치가 2군 코치로 보직을 옮겼고, 이강철 불펜 코치가 1군 투수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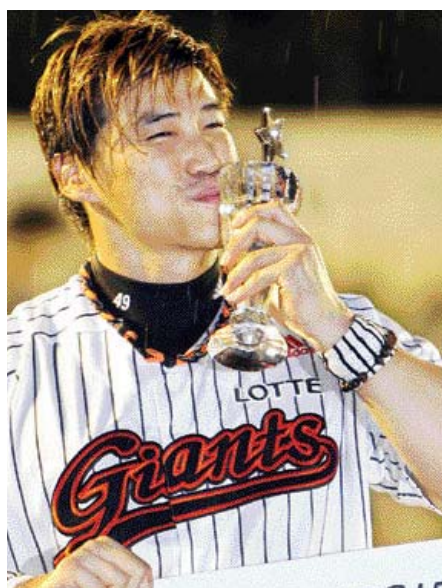
위기의 조범현, 올 네번째 코칭스태프 보직 변경
이강철·김정수·이건열 전면배치 "가을잔치 가자"

치를 맡게 됐다. 1군 불펜 코치는 2군에서 올라온 김정수 코치가 담당하게 된다. 타격 지도에도 변화가 있다. 후반기 타격 지도 체제가 이견열 코치로 단일화된다. 그동안에는 황병일 수석 코치와 이견열 코치가 1군 타격 지도를 맡아왔다. 황병일 코치는 수석 코치 본연의 업무에 주력한다. KIA는 올 시즌 벌써 4번째 코칭스태프 인사를 단행했다. 타격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난 4월말 최경환 타격 코치를 2군으로 내리고 이견열 코치를 1군 타격 코치로 보직이 동시됐다. 6월 말에는 1·2군 운영팀장 교체가 있었고, 지난 15일에는 장재중 배터리 코치를 2

군으로 내리고 김지훈 배터리 코치를 1군으로 올렸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KIA는 16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연패 기록을 작성했고, 22일 삼성과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또 다시 패배를 기록했다. 수세에 몰린 KIA는 하반기 반격을 위해 다시 한 번 개편 작업에 나섰다. 전반기 '조범현호' 배대가 됐던 투·타의 체계를 전면 수정한 만큼 이번 코칭스태프 개편은 조범현 감독에는 비장의 카드이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번 개편으로 KIA는 4강 싸움에서 총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을 선택했다. 올 시즌 새로 KIA 마운드 조련을 맡은 스

키모토 코치 대신 오랜 시간 투수들과 호흡을 맞췄던 이강철 코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타선을 가다듬는 역할도 이견열 코치에게 집중된다. 2기 체제가 출범한 올시즌 타격 지도를 위해 황병일 수석코치와 함께 최경환·이견열 코치가 총투입됐다. 인스트럭터로 활동했던 마츠바라 코치까지 시즌 중 지도 일선에 나서 KIA 타력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사공많은 배 산으로 가버린 영국'이 되버렸다. KIA는 시즌 초반 '조급함'에 쫓기면서 성적, 새로운 체계 정착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치고 말았다. 갈팡질팡하는 사이 성적은 추락했고 팀 컬러도 불명확해졌다. 코칭스태프의 책임과 역할의 경계가 애매했던 KIA는 결국 시즌 중 사실상 전면적인 코칭스태프 개편 작업을 마무리 했다. 마지막 카드까지 빼어든 조범현호가 하반기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쾌남아' 홍성흔의 무대



홍성흔이 버틴 이스타리그(SK, 삼성, 두산, 롯데)는 롯데 황재균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웨스턴리그(KIA, LG, 넥센, 한화)를 9-8로 제압했다. 이날 승리로 역대전적에서

'쾌남아' 홍성흔의 무대였다. 24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010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롯데 홍성흔이 홈런 두 방을 포함해 5타수 4안타 3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별종의 별'에 등극했다. 올스타전 최다득표에 빛나는 홍성흔은 미스터 올스타까지 동시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최다득표 수상자로 상금 200만원을 쟁긴 홍성흔은 미스터 올스타에 등극하며 기아 자동차 제공의 K5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았다. 60만원의 홈런 상금(개당 30만원)까지 받으면서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홍성흔이 버틴 이스타리그(SK, 삼성, 두산, 롯데)는 롯데 황재균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웨스턴리그(KIA, LG, 넥센, 한화)를 9-8로 제압했다. 이날 승리로 역대전적에서

프로야구 올스타전 팬투표 1위에 별종 별 등극
 이스턴, 웨스턴리그에 9대8 승... 홈런왕 김현수

이스타리그가 22승 13패로 확실한 우위를 잡하게 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좌완 김광현(SK)과 류현진(한화)의 '좌완 빅매치'가 성사된 가운데 1회 초 웨스턴리그가 선두타자 이용규(KIA)의 볼넷에 이어 이대형(LG)의 2루타로 손쉽게 선취점을 올렸다. KIA 최희섭의 싸늘이 2루타와 LG 정성훈의 2타점 적시타 등 웨스턴리그는 1회에만 11명의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6-0을 만들었다. 7회말 3-8로 끌려가던 이스타리그 타선이 폭발했다. 양준혁(삼성)이 1사 1·2루에서 넥센 금민철을 상대로 우측 펜스 넘어가는 스리런 홈런을 장식했다. 곧이어 롯데 공격의 핵심 홍성흔과 가르시아가 1회에 이어 또 다시 연속타자 홈런을 만들어내며 8-8 동점이 됐

다. 올스타전 사상 첫 세타자 연속 홈런이다. 8-8로 맞선 9회말 무사만루에서 롯데 황재균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경기는 이스타리그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두 개의 홈런을 비롯해 3안타를 터뜨린 가르시아는 우수타자, 2와 3분의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차우찬(삼성)은 우수투수에 선정됐다. 두산 이용찬은 탈삼진상(2개), 5회 호수비를 보여준 LG 정성훈은 우수수비상을 받았다. 장외 파워대결에서는 두산 김현수가 주인공이 됐다. 7아웃 단관승부로 벌어진 홈런 레이스에서 김현수는 10개를 대포를 쏘아올리며 역대 최다 기록으로 홈런왕에 등극했다. 최희섭과 LG 조인성은 3개의 홈런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태균·임창용 日 올스타전 빛났다

한국인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홈런왕에 오른 '한국산 거포' 김태균(28·지바 롯데)이 후반기 정상 정복에 나섰다. 23일과 24일 후쿠오카와 나가타에서 열린 올스타 1·2차전에 참가한 김태균이 본격적으로 후반기 준비에 돌입했다. 전반기 막판 체력 저하에 시달렸던 김태균으로서는 27일 첫 경기 전까지 몸을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김태균이 전반기를 마치고 폭 쉬는 대신에 올스타전에 나서면서 얻은 것도 많다. 무엇보다도 바닥을 쳤던 타격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개막전부터 팀의 4번 타자 자리를 꿰차며 힘차게 일본 무대에 데뷔한 김태균은 5월에 만 홈런 9개를 쏘아올리고 인타리그 타점 1위(24점)에 오르면서 정점을 찍고 나서 내리막을 걸었다. 체력 부담 탓에 밸런스가 무너졌고, 니혼햄과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는 12타수 무안타에 그치는 등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올스타전을 맞았다. 일본 진출 첫째 팬 투표에서 리그 최다득표를 하며 올스타로 뽑힌 김태균은 부담이 적은 올스타전 무대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며 조금씩 타격 감각을 되찾았다. 24일 2차전에 앞서 열린 홈런 데비에서는

김- 한국인 첫 홈런왕
 임- 2년 연속 무실점

1,2루안드 함께 6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올스타 홈런왕에 오르는 등 스윙이 다시 날카로워지고 있다. 올스타전에서 2년 연속 무실점 호투를 펼친 철벽 마무리 투수 임창용(34·야쿠르트) 역시 '일본 통산 100세이브' 목표를 향해 정조준을 마쳤다. 무릎 부상을 떨치고 6월초 1군에 복귀한 임창용은 17경기에서 패배 없이 세이브 14개를 추가하며 필멸 날고 있다. 올스타전에서도 임창용은 공 7개로 타자 네 명을 상대하며 깔끔한 투구를 선보였다. 감독 추천으로 2년 연속 올스타전 무대를 밟은 임창용은 24일 팀의 마무리 투수로 마



임창용(왼쪽)과 김태균. 운드에 올랐다. 5-5 동점 상황에서 등판한 임창용은 2루타 한 개를 맞으며 위기를 맞았으나 자신 있게 직구를 계속 쏘아보이며 세 명의 타자를 모두 발타로 처리하고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연합뉴스



연아의 카리스마

피겨 퀸 김연아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삼성 애니콜 하우젠 2010 올렛 스케이트 서머 아이스쇼'에서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다시 질주 부상복귀 이틀연속 타점

부상에서 돌아온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이틀 연속 타점을 올리면서 중심 타자 몫을 제대로 해냈다. 추신수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 홈경기에서 4차례 타석에 들어서서 타점 1개 포함, 3타수 2안타를 때렸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상을 털고 돌아온 추신수는 전날 복귀 첫 경기에서 결승

타점을 치면서 존재감을 알렸다. 이날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첫 타석 초구부터 화끈한 방망이 솜씨를 과시했다. 1사 1루에서 바깥쪽으로 날아드는 시속 159km짜리 빠른 직구를 밀어쳐서 2루타(15호)를 맞았다. 이 사이 1루 주자 트레버 크로는 홈을 밟았고 상대 야수가 수비하는 틈을 타 추신수는 3루까지 파고 들었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3회 볼넷을 끌다 출루한 추신수는 8회 다시 안타를 추가했다. 2사 1루에서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타율을 0.286에서 0.290으로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Grand open

자이언트골프존

• 피트니스센터와 특급 호텔/레스토랑 / 피아노 센터
 • 호텔급 차량세 서비스 / Taylor Made 클럽 판매
 • 200여대의 넉넉한 주차공간

문의 : 521-0071